

“인간다운 삶에 기여하는 것이 문학의 사명”

컬처 & 피플

소설가 조정래

“필사는 열독 중의 열독이지요. 읽기도 어렵지만 소설을 옮겨 쓰는 것은 백 번 읽는 것보다 나은 일입니다. 작가로서 이보다 더 고마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순천 출신 조정래(71) 작가가 최근 보성군 벌교읍 태백산맥문학관에서 열린 ‘태백산맥’(전 10권) 필사본 기증독자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에 참석했다. 필사 기증자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행사에서 작가는 “소설가로서의 존재 이유와 글을 쓰는 보람을 느꼈다”고 감회를 밝혔다.

1986년 첫 출간 이후 지금까지 800만 부 이상 판매된 ‘태백산맥’은 원고지만 1만6500장에 이를 만큼 방대한 분량이다. 필사를 한 독자들에게 짧게는 6개월, 길게는 4년이 걸린 인고의 작업이었다.

“원고를 쌓아놓고 그 사이에서 얼굴은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왜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마흔에 ‘태백산맥’을 시작했는데 ‘아리랑’을 거쳐 ‘한강’을 끝내고 나니 예순이 되었던 거지요. 그 20년 세월은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아들을 장가들었고, 나를 할아버지로 만들었으니까요.”

작가 조정래. 남도가 자랑하는 한국현대문학사의 거장이다. 수식어가 필요 없는, 어쩌면 수식어가 거추장스러운 작가다. ‘집을 짓는다’(作家)는 작가 본연의 의미에 가장 합당한 이다.

조정래 작가는 근현대사 질곡의 이면에 드리워진 참상의 부당성을 끊임없이 묻고 작품에 투영해왔다. “문학은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인간에게 기여해야 한다.” 벌교 태백산맥문학관에 걸린 이 글귀는 그가 온몸으로 밀고 나간 문학정신이다.

작가는 지금까지 한국의 근현대사를 ‘태백산맥’(10권), ‘아리랑’(12권), ‘한강’(10권)이라는 굵직한 대하소설 3부작으로 형상화했다. 지난해 7월 발간한 ‘정글만리’(3권)는 200일 만에 총 판매 130만 부를 넘어설 만큼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았다. 지난 3월에는 ‘정글만리’ 3권 통산 250쇄를 넘기기도 했다.

“90년대 ‘아리랑’ 취재차 중국에 갔을 때 작품을 구상했습니다. 80년대와는 사뭇 달라져버린 중국 모습이 예사롭게 다가왔어요. 당시 중국은 우리나라가 라면 하나씩만 팔아도 10억 개인 80년대의 중국이 아니었으니까요.”

작가는 변화의 가능성을 현지에서 직접 확인했다. 소련은 몰락했는데 왜 중국은 견제하는지를 말이다. 이전만 해도 한국인의 눈에 중국은 작통의 나라, 저지분하고 게으른 나라로 비쳤다. 그러나 그것은 편견에 지나지 않았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을 금방 따라할 만큼 손재주가 정교했다. 장인정신만큼은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았다.

제목이 암시하듯 ‘정글만리’는 ‘정글’과 ‘만리’가 결합된 말이다. 강자와 가진 자만이 살아남는 중국의 모습을 상징하면서도 세계경제 중심(G2)으로 발돋움한 지력을 함축하고 있다.

“중국 관련 기사를 스크랩한 수첩 90권, 현지 취재에서 얻은 정보를 기록한 수첩 20권, 여기에 중국 관련 책을 80권이니 읽었습니다. 그동안



‘태백산맥’·‘아리랑’·‘한강’ 등 집필 원고를 배경으로 손자와 포즈를 취한 작가. (조정래 제공)

“태백산맥” 필사본 받고 작가로서 존재 이유·보람 느껴 완벽한 고립 속 건너는 문학의 강...민중은 영원한 테마”

8차례나 현지를 오가며 취재를 했고 갈 때마다 두 달씩 머무르며 현지 분위기를 파악했지요.” 한마디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했다. 중국 역사를 전공한 학자가 아닌 작가의 정경이다. 소설에는 빠르게 전개되는 스토리를 축으로 중국의 역사와 문화가 정교하게 스며들었다.

일반 작가가 그렇듯 그에게도 글을 쓰는데 독특한 습관이 있다. 그는 “소설 첫 문장을 쓸 때마다 파지판 30여 장을 버릴 만큼 시작이 어렵다”고 말한다. 그러나 첫 문장이 산고 끝에 정해졌다고 해서, 모든 게 술술 풀리는 것은 아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만 원고지 한 장은 불과 1만5000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1만4999를 가기 위해서는 철저히 글감에 갇혀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과의 완벽한 고립이 없이는 도저히 문학의 강을 건널 수 없다. 가혹한 절연만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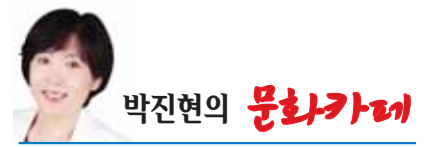
그 절연의 소설쓰기 가운데 그는 단 한시도 ‘민중’을 잊어본 적이 없다. 지금껏 역사는 집권

층과 전정이라는 테마 위주로 기술되었다. 민중의 존귀함, 백성의 위대함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동시대를 사는 작가로서 그 점이 늘 안타까웠다. 과연 정치는 백성을 위해 무엇을 했으며, 집권층은 무엇을 회상했는가?

그의 대하소설에 흐르는 일관된 주제는 역사의 식이다. 문학적 상상력과 소설적 진실이 작가의 식과 맞물려 빛어낸 웅숭깊은 성과다. 또한 그것은 태백산맥을 넘고, 한강을 건너, 아리랑을 부르며 21세기까지 달려온 우리들의 힘이기도 하다.

작가는 앞으로 교육 문제를 다룬 소설을 쓸 예정이다. ‘파탄에 빠진 대한민국 교육’을 주제로 비롯된 교육 현실을 파헤칠 계획이다.

“우리 세대는 한글 1세대입니다. 작가가 어느 세대보다 많이 나왔고 창작활동도 활발히 했지요. 이 땅의 모든 문화는 모국어의 자식입니다. 모국어에 대한 은혜를 갚는 것은 작가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니까요.” /서울=박성천기자sky@/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박선현의 문화카레

볼과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경기도 부천시는 ‘회색도시’였다. 1973년 시 승격 이후 인구와 공장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교통난과 대기오염이 극심했기 때문이다. 내세울 만한 관광명소는 고사하고 시민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줄 ‘문화’도 거의 없었다. 그로부터 40여 년이 흐른 지금,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 수도권은 작은 공업 도시였던 부천은 이제 서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문화도시로 변신중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부천 시립교향악단(부천필)이 있다. 부천필은 부천시를 상징하는 문

음악계를 놀라게 한 일대 ‘사건’이었다. 무엇보다 부천필이 전국구 스타가 된 데에는 ‘교향악 축제’를 빼놓을 수 없다. 매년 이맘때쯤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교향악축제는 전국의 교향악단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뜻 깊은 무대다. 특히 지방교향악단들에게는 수도권 관객들 앞에서 기량을 뽐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만약 관객들과 ‘통’할 경우 부천필처럼 ‘전국구 스타’로 부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 봄 광주 문화계에 희소식이 전해졌다. 7년 동안 교향

광주시향, 능력을 보여줘!

화브랜드이자 KBS·서울시립교향악단과 함께 국내 ‘빅3’ 오케스트라로 자리잡았다. 톱스타들의 전유물처럼 여겼던 팬클럽 ‘부사모’(부천필을 사랑하는 모임)까지 거느릴 정도다.

사실 1988년 부천필이 창설될 때만 해도 지역의 여론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다. “50만 명의 작은 도시에 무슨 오케스트라냐”는 불만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부천시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이듬해 당시 임현정 서울대 음대 교수를 삼고 초려 끝에 지휘자로 영입하고 엄격한 오디션 과정을 거쳐 선발된 단원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처우를 아끼지 않았다. 올 초 디엠(지휘대)을 떠날 때까지 임지휘자는 20여 년 동안 부천필을 ‘색깔 있는’ 오케스트라로 이끌었다. 국내 최초의 말러 교향곡 전국 연주(1999~2003년)는

악축제와 ‘담을 쌓았던’ 광주시립교향악단(지휘자 이현세)이 8~14일 열리는 2014 교향악 축제의 라인업에 ‘드디어’ 이름을 올린 것이다. 서울시향, 부천필 등 18개 교향악단이 참가하는 이번 축제에 광주시향은 베르디의 오페라 ‘투이자 밀라’ 서곡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이번 광주시향의 ‘서울 나들이’가 반가운 건 클래식 애호가들에게 지역의 음악수준을 보여줄 수 있어서다. 지난 2007년부터 이런 저런 이유로 축제에 참가하지 않은 탓에 광주시향의 존재를 알릴 기회가 거의 없었던 때문이다.

연제부터가 도시를 대표하는 오케스트라는 지역의 문화적 품격을 과시하는 척도가 됐다. 모쪼록 문화수도의 위상에 걸맞은, 광주시향의 멋진 공연을 기대한다.

(편직부국경 문화선임기자)

국립광주박물관 ‘어린이 체험관’ 운영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종)은 9일부터 7월9일까지 어린이 체험관을 운영한다. 체험관은 3~5학년을 대상으로 ‘똑똑똑 어린이 체험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똑똑똑 어린이 체험관은 시대별 그릇에 대한 전시관람·이론학습·체험학습으로 진행된다. 첫 시간인 9일에는 ‘신석기시대의 생활’을 주제로 열리며, 이어 청동기시대의 생활, 조상

들의 삶의 터전, 흙으로 빚은 인형, 고려의 향기를 담은 그릇, 조선의 품격을 담은 그릇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매달 둘째, 넷째 주 수요일 오후 3시30분부터 5시까지 열린다. 참가자는 홈페이지(http://gwangju.museum.go.kr)를 통해 선착순으로 20명을 모집한다. 참가비는 무료(재료비 별도)다. 문의 062-570-7048.

/김경민기자 kji@



www.kjhr.com

since 1982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다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보약, 홍삼은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